

칼빈 신학을 통해 본 성경 권위와 해석의 상호관계에서 성령의 중심성*

윤형철 (한영신학대학교/조직신학)



후근대의 인식론적 위기 속에서 성경의 권위를 온전히 인식하고 그에 따른 신실한 해석적 삶을 살고자 애쓰는 복음주의자들에게 칼빈은 어떠한 유용성을 지니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변으로서 본 논문은 칼빈 신학에서 성경의 권위를 어떻게 재정립하고, 성경의 권위와 해석을 어떻게 상관적으로 통합시키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러한 상관관계에서 성령의 핵심적 역할을 어떻게 강조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칼빈에게 성경은 죄로 인해 봉착한 인간의 인식론적 혼돈과 무능을 타개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능케 한 구원경륜에서의 언약의 책이다. 성경은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신적 권위를 교회나 인간의 이성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입증(자증)한다. 하지만, 칼빈의 신학에서 성경의 자증적 권위는 성령의 내적 증거(*testimonium Spiritus sancti*)와 분리되지 않는다. 성령은 신자로 하여금 성경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진리로 믿게 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한다. 마찬가지로 칼빈의 신학에서 성경의 권위와 해석은 밀접하게 연관되어서 서로로부터 떼어서 말할 수 없다. 성경의 권위는 성경의 신적 저자이자 참된 해석자이신 성령의 조명으로 그 내용을 깨달음으

* 본 논문은 2014년 10월 25일에 개최되었던 제64차 한국복음주의신학회 정기논문 발표회의 조직신학분과 주제발표 논문을 수정, 보완하여 제출한 것입니다.

* 논문 접수일: 2015. 02. 07. 수정 접수일: 2015. 03. 11. 게재 확정일: 2015. 03. 17.

로써 더욱 확고히 고백될 수 있다.

칼빈이 계승한 종교개혁의 해석학적 원칙인 성경 자해석과 성경의 명료성은 성경해석에 있어서 성령의 중심성을 상기시켜준다. 성경 자해석의 원칙은 결국 하나님이 스스로 맞추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뜻을 소통시키시는 성령의 해석을 가리킨다. 마찬가지로 성경의 명료성은 믿음 공동체의 해석학적 미성숙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성경 안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라는 종교개혁자들의 확신이다.

이러한 주장을 통해서 칼빈은 성령을 교회라는 형식적 기관에 내재화하고 순치시킨 로마교회의 신학적 주장을 반박하고 바로 잡으려 하였다. 칼빈은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자신을 굳게 결속시킨 외재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주제어: 언약의 책, 자중(αὐτόπιστος), 성령의 내적 증거, 하나님이 스스로 맞추어 주시는 말씀(God's accommodating Word), 성경 자해석의 원칙, 성경의 명료성, 성령과 말씀의 결속

I. 들어가는 말

“성경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권위를 지니고 있으며, 성경의 해석과 실천이 어떠한 전제와 물음들 속에서 이뤄져야 하는가?”라는 것은 복음주의자들의 신앙과 신학에 있어서 중심축을 이루는 물음이다. 필자는 이 물음에 답하려고 고군분투하는 복음주의자들이 이제는 수많은 지류로 뻗어가고 얽혀있는 성경의 권위와 해석에 대한 현대의 논쟁들로부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위대한 종교개혁자 칼빈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큰 유익을 지닌다고 본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짚어보자면 다음과 같다.

복음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읽고 듣고 해석하고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원경륜으로서의 기독교 역사에 참여하고 있음을 고백한다. 특히 기독교의 역사적, 신학적 분기점이라 할 수 있는 종교개혁의 새로운 발견과 통찰과 고백의 전통에 자신들이 속해있다고 믿는다. 성경의 권위와 해석에 대한 복음주의자들의 이해가 항상 종교개혁의 신학적 전통으로부터 가장 본질적이고 통찰을 이끌어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칼빈과 종교개혁자들의 사상이 복음주의자들에게 유용한 이 유가 단지 신앙적 고백과 실천의 유사동질성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칼빈의 시대는 진리를 안다는 것에 대한 인식론적 위기가 고조되던 시대였다.¹ 16세기 인문주의 르네상스는 그리스 로마 시대의 고전들에 대한 수사학적이고 철학적인 탐구를 통해 인간의 의미와 삶의 가치를 재정립하려 하였는데, 이는 그때까지 유럽인들의 삶을 지배했던 교회의 전통적인 가르침에 대한 불신과 부정이 팽배해졌기 때문이었다. 교회가 가르치는 지식과 진리에 대한 불신은 인식론적 대안으로서 경험주의나 실용주의적 지식을 대두시켰고, 심지어 신학을 하는 방식에서도 신학을 인간의 일로 규정하는 인본주의적 신학의 등장을 야기하였다. 종교개혁이라는 새로운 여명으로부터 태동한 칼빈의 신학은 르네상스적 인본주의가 초래한 ‘신학적 인식론의 위기’라는 거센 소용돌이 가운데서 투쟁하면서 발전해갔다. 칼빈의 사상이 지금 우리에게도 유용한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이 지점에서 발견될 수 있다. 칼빈의 시대와 우리의 시대는 ‘인식론적 위기와 해석적 삶의 혼돈’이라는 상황적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후근대적 상황도 칼빈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기독교의 진리와 인식이 이 데올로기적 편견과 기준에 의해 회의되고 부정되며,² 기독교 진리의 기준인 성경의 권위와 해석에 대한 믿음공동체의 주장이 도전받고 있기 때문

¹ William J. Bouwsma, “Calvin and the Renaissance Crisis of Knowing,” *Calvin Theological Journal* 17/2 (1982): 190-211.

² Alister E. McGrath, *The Genesis of Doctrine: A Study in the Foundations of Doctrinal Criticism* (Oxford, UK: Basil Blackwell, 1990), 153.

이다.

신앙과 삶의 절대적 규범인 성경의 권위가 도전받고 성경을 따르려는 해석적 삶이 비난받는 상황 속에서 복음주의자들은 필사적으로 길을 찾고 있다. 그것이 수용과 적응이든 아니면 저항과 응전이든, 혹은 참여와 변혁이든 바른 길을 찾기 위해 필요한 통찰들과 관점들은 본질적으로 ‘이전에는 없던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오래된’ 것이라고 필자는 확신한다. 그런 의미에서 칼빈 신학의 ‘오래됨’은 ‘낡아 쓸모없음’이 아니라 오히려 오래 묵어 ‘웅숭깊음’을 뜻한다. ‘오래된’ 칼빈의 신학은 그 시대를 헤쳐 나가던 매섭고 날카로운 통찰과 균형 잡힌 견고한 신학적 힘으로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갈 바를 알려주고 어깨를 떠밀어주는 “오래된 미래”³와도 같다.

필자는 본 연구에서 칼빈의 사상에 나타나는 성경의 권위와 해석의 밀접한 관계에 주목하고, 그러한 상호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성령의 역할에 대한 칼빈의 통찰을 강조하고자 한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1권의 6-9장에서 성경의 권위에 관한 논의를 삼입적으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성경의 권위와 해석이라는 주제는 그의 신학 전반에서 전개되는 핵심적인 사상들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상호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제한적 지면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칼빈 신학의 핵심적 사상들, 칼빈의 저술 의도와 신학적 작업에 대한 사유, 신학적 구조를 변혁하려는 종교개혁적 기획 등의 다양한 신학적 요소들을 고려하여 성경의 권위와 해석에 대한 칼빈의 사상이 품고 있는 지질과 구조를 드러내려고 노력할 것이다.

³ 필자는 이 표현을 생태학 분야의 고전으로 통하는 헬레나 노르베리-호지의 『오래된 미래: 라다크로부터 배우다』(중앙북스, 2007)에서 빌려 왔다.

II. 칼빈 신학에서 성경 권위와 성령의 관계

1.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한, 구원경륜에서의 언약의 책

기독교 강요의 도입부는 칼빈의 수사학적 전략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의 첫 페이지에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Dei cognitione et nostri*)”⁴이라는 지식의 이중적인 목적(*duplex scopus*)에 대한 언급으로 운을 떼는데, 이는 인문주의자들의 인식론적 주장에 대한 답변이기도 하다. 당시의 인문주의자들은 인간 자신에 대한 탐구를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의 주장에 응수하면서 칼빈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봄(*faciem Dei contemplari*)으로써만 우리 자신을 알 수 있다고 단언한다.⁵ 이어서 칼빈은 신과 자신에 대한 인간의 인식론적 탐구가 타락과 범죄로 인해 직면하게 된 비극적인 상태를 적시해준다.⁶ 피조세계에 드러난 하나님의 명백한 계시는 인간의 인식적/해석적 능력의 오염으로 인해 제한되고 무용하게 되었다. 부패하고 망가진 인식 능력으로 인해 혼란해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새롭게 회복되기 위해서는 중보자를 통한 복음의 선포를 기다려야 한다. 기독교 강요의 첫 권에서 불순종과 타락으로 인한 인간의 인식론적 불능에 대한 칼빈의 철저한 인식은 매우 명징하게 드러난다. 출발점이었던 인식론은 필연적으로 구원론을 기대하게 함으로써 둘이 불가분리적으로 연결되게 만들었다. 이러한 구도와 전략에서 칼빈이 부각시키려 한 요점은 명료하다. 즉,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아는 참된

⁴ John Calvin,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in libros quatuor nunc primum digesta, certisque distincta capitibus, ad aptissimam methodum: aucta etiam tam magna accessione ut propemodum opus novum haberi possit* (in Latin) (5th ed.) (Genevae: Robert I. Estienne, 1559), 고영민 역, 『기독교 강요』 (서울: 기독교문사, 2006), 1권 1장 1항. 이후부터는 몇 권, 몇 장, 몇 항을 숫자로 표기한다(예. 『기독교 강요』 1.1.1.).

⁵ 『기독교 강요』 1.1.2. “한편 인간은 먼저 하나님의 얼굴(*Dei faciem*)을 대하고 난 후에 그에 관해 명상을 하는 일로부터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일로 옮겨가지 않는 한 자기 자신에 관해 결코 명확히 알 수가 없다.”

⁶ 『기독교 강요』 1.5.1-14.

지식이 실제로 가능해지고 충만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구속경륜을 통해서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로 인해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에 의해 받게 되는 구원의 인식론적 파생효과”⁷인 것이다.

이 점이 분명해질 때 ‘성경은 무엇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졌는가?’라는 성경의 목적에 대한 물음은 비로소 답해질 수 있다. 칼빈에 따르면 성경의 목적(*scopus Scripturae*)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⁸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구원경륜을 위하여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계시하시고 소통시키시길 원하셨고, 이를 위하여 더하여 준 “말씀의 빛”⁹이 성경인 것이다. 칼빈에게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경륜을 위한 책이다.

성경이 구원경륜을 위한 책이라는 것은 언약에 대한 칼빈의 사상에 서도 잘 나타난다.¹⁰ 칼빈에게 언약이란 ‘창조주이며 구속주인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인간의 포괄적이고 실제적인 상황을 타개하며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다. 칼빈에게 “은혜의 언약”¹¹이라는 개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경륜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이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약속이자 법칙이자 능력에 관한 것이며, 칼빈은 이것을 ‘언약’이라고 말한다.¹² 구약과 신약의 내용은 하나의 언약으로 읽히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수많은 긴장과

7 Graeme L. Goldsworthy, “‘Thus Says the Lord’: The Dogmatic Basis of Biblical Theology,” in *God Who is Rich in Mercy: Essays Presented to Dr. D. B. Knox*, eds. P. T. O’Brien & D. G. Peterson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6), 26.

8 『기독교 강요』 1.6.1. “이와 같이 성경은 우리의 마음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에 관한 혼란한 지식을 올바르게 정돈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우둔함을 깨닫게 하며 또한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참되신 하나님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9 『기독교 강요』 1.6.1.

10 칼빈은 『기독교 강요』 2권에서 먼저 타락과 죄의 상태와 결과 아래 매어있는 인간의 심각한 상태를 진단한다. 그런 후에 하나님이 율법과 복음으로 죄인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말하면서, 은혜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다루는 9장부터 언약교리를 전개한다.

11 『기독교 강요』 2.10.5.

12 『기독교 강요』 2.10.8.

같듯이 얽혀있는 역사들이지만, 그러한 차이점들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과 실체에 있어서 너무나도 비슷하기 때문에 두 언약은 실제적으로 하나요 동일한 것”¹³이다. 성경의 내용으로서의 구약과 신약이 이러한 언약적 통일성과 일치성을 지니는 것은 “동일한 중보자 그리스도의 은혜”¹⁴때문이며, 결국 언약으로서의 성경이 지시하는 ‘하나님 자신’으로 인한 것이다. 성경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약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며, 언약 백성의 제한되고 인간적인 능력과 환경에 자신을 적응시키시는 하나님이며, 언약백성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그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이고, 그들에게 언약의 책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¹⁵

칼빈에게 성경은 인간의 죄가 초래한 인식론적 혼돈과 무능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도구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경륜 속에서 인간의 죄라는 현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언약’이며, 성경은 다름 아닌 ‘언약의 책’이다. 따라서 성경의 권위와 해석에 대한 논의는 삼위일체적 구원경륜이라는 큰 주제의 변주로서 수행되어야 한다. 특별히 유념해야 할 것은 성경 권위의 ‘인식’과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이라는 주제가 여러 가지 역설적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중 몇 가지를 예로 들어보자면, ‘신적 말씀이 인간의 언어적 형태를 통해 들려온다는 것’, ‘우리의 해석적 한계와 죄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해석에 관여하시는 성령은 우리의 해석을 배제하지 않고 상호적으로 일하신다는 것’, ‘성령은 해석이라는 과정에 영 단번이 아닌 지속적인 임재로 개입하신다는 것’, ‘성령의 조명은 예수의 인성과 신성의 위격적 연합과는 다른 방식인 성령의 내주를 통해 일어난다는 것’, ‘성경 권위의 인식과 해석에 있어서 성령의 사역은 인간성과의 상호적 협력으로 인해 완전과 불완전, 무오와 오류가

¹³ 『기독교 강요』 2.10.2.

¹⁴ 『기독교 강요』 2.10.1.

¹⁵ Dirk J. Smit, “Rhetoric and Ethic? A Reformed Perspective on the Politics of Reading the Bible,” in *Reformed Theology: Identity and Ecumenicity II*, eds. W. M. Alston, Jr. & M. Welker (Grand Rapids: Eerdmans, 2007), 400.

서로를 배제하지 않고 공존한다는 것' 등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요소들은 구원경론에서 성령이 임재하고 역사하는 독특한 방식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조화롭게 설명하기 힘들다.¹⁶ 아래에서 필자는 칼빈이 성경의 권위와 해석의 문제를 성령론에 대한 탁월한 인식과 관점을 통해서 어떻게 풀어 나갔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2. 성경의 자증적 권위와 성령의 내적 증거

칼빈에게 성경의 궁극적인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 됨’으로부터 온다. “성경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들려오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기인되었다고 간주될 때에만 비로소 믿는 자들 가운데서 완전한 권위(*plenam auctoritatem*)를 획득하게 된다.”¹⁷ 칼빈은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viva vox Dei*)으로서의 권위를 지닌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그 권위가 오직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만 인증되고 보증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여기에서 우리는 칼빈의 성경권위론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영향력 있는 주장을 발견한다.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이 지닌 신적 권위와 위엄을 확증하기 위해 동원되는 모든 교회적/인간적 지지대를 철거시키고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그것을 확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천명한다. 칼빈에 따르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주장한다는 것은 교회를 비롯한 어떠한 인간적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입증하는(*self-authenticating*) 것이다.¹⁸

하지만, 칼빈이 말하는 성경의 자증적 권위는 성경의 권위가 순전히 객관주의적이고 형식적이라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기독교 강요의 시작이 인식론적 질문에 대한 답변임을 상기할 때, 성경권위에 대한 칼빈의

¹⁶ 화란 개혁주의 신학자인 아놀드 반 룰러(Arnold A. van Ruler, 1908-1970)는 구원에 관한 기독교적 이해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기독교적 관점과 성령론적 관점이 지니는 구조적 차이에 대해서 유용한 통찰을 제공해준다. 이에 대해서 Arnold A. van Ruler, *Calvinist Trinitarianism and Theocentric Politics: Essays Toward a Public Theology*, trans. John Bolt (Lewiston, NY: Edwin Mellen, 1989), 27-46을 보라.

¹⁷ 『기독교 강요』 1.7.1.

¹⁸ 『기독교 강요』 1.7.5.

논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떻게 경외와 순종으로 청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제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성경의 자증적 권위에 대한 칼빈의 주장은 결국 성경권위의 ‘인식의 축’을 로마 가톨릭의 교권으로부터 성경 자체로 돌려놓는 것이며,¹⁹ 이를 통하여 그리스도인 독자로 하여금 성경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경륜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자 언약의 책으로 고백하고 읽고 듣게 하고 더 나아가 구원에 대하여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한 것이다. 따라서 성경 권위에 대한 칼빈의 관심과 강조는 “그리스도인들이 배제된 순전히 객관적인 권위”보다 “그리스도인과 함께 하는 권위(*apud fideles auctoritatum*)”, 즉 “신자들의 마음에 인식되는 권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²⁰

칼빈이 성경의 자증적 권위를 말할 때, ‘우리를 위한 권위’를 말하고 있다는 것은 기독교 강요의 1559년 라틴어 판에서 섬세한 언어적 감각으로 사용한 헬라 용어 *αὐτόπιστος*에서 엿볼 수 있다.²¹ 칼빈은 “성경은 스스로 그 진정성을 입증한다(*scriptura est αὐτόπιστος*)”²²라고 말하면서 성경의 권위를 말할 때 중세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과 스콜라주의 신학

¹⁹ 칼빈의 시대에 성경 권위와 관련된 핵심 쟁점은 권위를 둘러싼 성경과 교회의 관계였다. 종교개혁자들은 성경보다 교회의 권위를 우위에 두는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를 비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이 지닌 권위의 유일성과 우월성을 강변하였다. 성경의 권위에 대한 칼빈과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은 주요한 개혁주의 신앙고백서들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예를 들어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Confessio Helvetica Posterior*)는 서두에서 성경만이 보편적 교회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분하고 권위있는 원천임을 천명하고 있다. 이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는, Edward A. Dowey, Jr., “The Word of God as Scripture and Preaching,” in *Later Calvinism: International Perspectives*, ed. W. Fred Graham (Kirksville, Mo: Sixteenth Century Journal, 1994), 5-18을 참고하라.

²⁰ John Murray, *Calvin on Scripture and Divine Sovereignty*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60), 나용화 역, 『칼빈의 성경관과 주권사상』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2), 71.

²¹ Henk van den Belt는 *αὐτόπιστος*라는 용어의 어원과 의미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통하여 칼빈이 이 용어를 차용한 신학적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논의는 Henk van den Belt, *The Authority of Scripture in Reformed Theology: Truth and Trust* (Leiden, The Netherlands: Brill, 2008)의 2장과 3장을 참고하라.

²² 『기독교 강요』 1.7.5의 첫 부분의 라틴원문은 다음과 같다: “Maneat ergo hoc fixum, quos Spiritus sanctus intus docuit, solide acquiescere in Scriptura, et hanc quidem esse αὐτόπιστον, neque demonstrationi et rationibus subiici eam fas esse; quam tamen meretur apud nos certitudinem, Spiritus testimonio consequi.” John Calvin, *Joannis Calvini Opera selecta*, eds. P. Barth and W. Niesel (Munich: C. Kaiser, 1926-1952), 3, 70.

에서 흔히 사용하던 라틴어 *principium* 대신 헬라어 ἀπόπειρος를 사용한다. 화란 개혁주의 신학자 헵크 반 덴 벨트(Henk van den Belt)에 따르면 칼빈의 이러한 파격적 용어 사용은 라틴어로 담아낼 수 없는 ἀπόπειρος의 특별한 뉘앙스로 인한 것이다.²³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서 증명의 필요가 없는 절대 원리의 자증적이고 궁극적인 권위를 표현하는 용어였던 *principium*은 중세 스콜라 신학에서 성경의 권위를 표현하는 용어로 사용되었고,²⁴ 성경은 신학의 공리(*principia theologiae*)로서 자증적(self-evident)인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이러한 용어 사용으로부터 추론되는 이해는 성경의 진정성이나 기원에만 초점이 맞춰진 채 우리와 무관한 권위를 지닌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반 덴 벨트는 칼빈이 라틴 용어의 이러한 용법과 용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헬라어 ἀπόπειρος를 대체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본다.²⁵ 헬라어 ‘ἀπόπειρος’에는 라틴 용어가 담지 못한 ‘πιστός’(trust)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서 ‘진리(truth)’와 ‘신뢰’(혹은 믿음, trust)라는 이중적 의미를 담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라틴 용어 ‘*principium*’은 참된 믿음과 신뢰가 없이도 ‘논란의 여지가 없이 확실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한 반면, ‘ἀπόπειρος’는 성경의 권위와 진리가 “성령을 통해 가르침을 받고 인침을 받은 자들”²⁶에 의해서 믿어지고 고백된다는 것을 가리킨다.

성경의 자증적 권위의 술어로 선택한 헬라어 ἀπόπειρος의 함축에 대한 이러한 추론은 칼빈 성경론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성령의 내적 증거’에 대한 강조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성경의 자증성은 인간의 이성이나 합리에 의해서 그 신적 권위와 위엄을 설명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사실 상 성경 자체의 신적 권위의 위엄(*maiestas*)은 우리의 인식과 확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지만 교회에 의해서도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도 성경

²³ Van den Belt, *The Authority of Scripture in Reformed Theology*, 71, 112.

²⁴ Van den Belt, *The Authority of Scripture in Reformed Theology*, 88.

²⁵ 아쉽게도 칼빈은 자신이 파격적으로 사용한 ‘ἀπόπειρος’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해주지 않는다.

²⁶ 『기독교 강요』 1.7.5.

의 신적 권위를 충분히 인식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할 수 있는가? 구원경륜을 위한 언약의 책으로서 우리에게(*apud nos*) 주어진 성경의 권위를 어떻게 인식하고 신뢰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칼빈의 답변이 바로 “성령의 은밀한 내적 증거(*arcantum et internum testimonium Spiritus sancti*)”²⁷이다. “성경은 성령의 증거에 의해 확증되어야 한다. 단지 이를 통해서만 성경은 그 절대적인 권위를 획득할 수 있다.”²⁸ 성경에 대한 최상의 증거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신다는 사실로부터 온다. 그런데 하나님 자신만이 스스로를 알고 스스로에 대해 증거할 수 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의 내적인 증거에 의해 외쳐지기 이전에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받아들여지지 않게”²⁹ 됨은 당연하다.³⁰

칼빈에게 성경의 자증성(*autopistos*)과 성령의 내적 증거(*testimonium*)는 구분될지언정 분리되지 않는(*distinctio sed non separatio*) 상관적인 개념이다. 외적(*extra nos*) 권위인 “성경의 본래적으로 있는 권위”는 내적(*in nobis*) 증거인 “성경은 권위 있다고 하는 우리의 확신”과 개념상 구분되지만, 칼빈은 이 둘을 분리될 수 없을 만큼 밀접하게 연결시키고 있다.³¹

27 『기독교 강요』 1.7.4.

28 『기독교 강요』 1.7의 표제

29 『기독교 강요』 1.7.4.

30 성령의 내적 증거에 대한 칼빈의 강조는 신정통주의 진영에서 나타나는 ‘성경의 권위에 대한 주관주의’로 이해되어서는 안된다. 칼빈의 관심은 성경 권위의 ‘인식’에 있으며 모든 인식은 ‘내면화’의 과정이다.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경의 권위를 교회가 ‘객관적으로’(혹은 무오하게) 확증하므로 신자들의 내면화가 불필요하다고 여겼고 오히려 성경에 대한 사적인 입장과 사적인 해석을 낳는다고 경계하였다. 하지만 칼빈에게 ‘구원의 확신에까지 이르기 위해서 성경의 신적 권위를 인식한다는 것’은 형식적 객관성을 뛰어넘는 것이어야 했다. 칼빈이 강조하는 성령의 내적 증거는 인간의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닌 ‘내면화된 객관성’ 혹은 ‘성화된 객관성’이라고 칭할 수 있다. 이는 성경이 무엇인가에 대한 객관적인 전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을 전제로 하여 그 권위의 인식 역시 성령 하나님 안에서 가능 하되, 형식적이고 외면화된 것이 아니라, 신자의 심령 깊은 곳까지 미치는 내면화된 것임을 의미한다. 반면, 주관주의적 접근은 성경권위에 대한 내면화된 인식이 ‘인간의 무엇’에 의존하고, 더 나아가 ‘성경이 무엇인가’까지 결정하게 만든다. 필자는 바르트의 성경에 대한 관점과 개혁신주의의 관점 사이의 불편한 관계는 이러한 차이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한다. 칼빈에게 ‘성경이 무엇인가’는 이미 전제된 문제이지 논쟁의 대상이 아니었다.

31 John Murray, *Calvin on Scripture and Divine Sovereignty*, 67. 머레이는 성경의 권위라는 문제에 있어서 칼빈이 객관성과 주관성 사이의 구별을 만족할 만큼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모호하기까지 한다고 지적한다. 머레이의 지적은 정확한 것이다. 다만 머레이

칼빈은 왜 성경의 자증적인 권위를 성령의 내적 증거와 뿔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하게 연결시키는가? 여기에서 우리는 칼빈이 성경권위론을 논리적, 인과관계적 순서보다 “믿음의 순서(order of faith)”³²를 따라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칼빈은 성경의 기원으로부터 성경의 권위를 설명해가는 논리적 추론의 길을 따르지 않고, 성경의 기원을 전제로 하여 성령의 내적 증거를 통해 신자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의 순서’, 즉 ‘신앙적 고백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 독자와 청중이 성경의 목적(구원경륜 안에서 은혜언약의 성취)을 이해하고 성경의 구원 메시지가 어떻게 그 목적을 이뤄 가는지를 깨닫도록 돕고 있다. 이러한 접근에서 우리는 칼빈의 목회적, 실천적 의도와 함께 영성과 경건을 향한 깊은 관심을 엿볼 수 있다. 그는 성경에 관한 논의가 사색적으로 흐르기를 원치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하는 데 유익을 주고자 한 것이다.³³

3. 하나님이 스스로 맞추어 주시는 말씀 (God's self-accommodating Word)

칼빈에게 성경은 ‘하나님이 스스로 맞추어 주시는(self-accommodating) 말씀’이다. 칼빈 신학의 대전제 중 하나는 거룩하고 광대하신 하나님과 비참한 인간 사이의 심원한 간격이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 미칠 수 없는 인간의 인식론적 불능은 그러한 격차로부터 비롯된다. 하나님의 불

이는 왜 칼빈이 객관과 주관 사이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필자는 논의를 통해서 ‘구별의 미흡함’이 칼빈의 의도적인 선택이었다고 주장할 것이다.

³² Richard A. Muller, “The Foundation of Calvin’s Theology: Scripture as Revealing God’s Word,” *Duke Divinity School Review* 44 (1979): 22. 풀러가 말하는 “믿음의 순서”는 성경권위의 인식이 “성경의 진정성에 대한 주관적 이해”로부터 “성경의 객관적 진리의 확신”으로 이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³³ 경건과 실천에 대한 관심과 믿음의 순서에 따른 접근은 신적 예정에 대한 칼빈의 설명에서도 쓰인다. 칼빈은 예정을 선택받은 자들이 신앙 여정 속에서 발견하고 고백하는 교리로 다룬다. 논리적 순서로 다룬다면 신론이나 섭리론에 위치해야 하는 예정론이 기독교 강요에서는 구원론에서 다루지는 것은 칼빈의 접근방식으로 인한 것이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김종희, “칼빈의 예정론”, 한국칼빈학회 편, 『칼빈 신학개요』 (서울: 두란노 아카데미, 2009), 125-39를 참고하라.

가해한 본질과 실재는 인간의 감각과 이해에 의해 포착될 수 없기 때문에³⁴ 하나님의 자기 맞추심(God's accommodation)이 요구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타락한 인성을 지닌 우리에게 가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서는 그의 높으신 위엄으로부터 낮은 곳으로 내려오지(*altitudinem descendere*) 않으면 안 되셨던 것이다.”³⁵ 칼빈에게 ‘하나님의 자기 맞추심’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신학적 관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해석학적 틀이다.³⁶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 하나님은 스스로를 인간의 인식론적 불능, 연약함, 무지, 무감각, 죄성, 그리고 야만성에 맞추신다. 맞추심의 원리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모든 방식에 적용된다. 자연과 역사의 일반계시와 성경의 특별계시에서, 그리고 가장 궁극적인 낮아지심인 성육신과 십자가에서, 그리고 성례전 속에서도 자신의 영광을 낮추시고 완화하여 스스로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한다. 칼빈에게 성경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기 맞추심의 한 방식이다.

하나님의 자기 맞추심 사상은 성경이 지닌 이중적이고 역설적인 특징을 조화시켜 설명하는 칼빈의 신학적 도구이다. 성경은 하나님 자신의 살아있는 말씀이며 그렇기에 신적 위엄과 권위를 지닌다. 이와 동시에 성경은 우리의 읽고 듣고 이해하는 능력에 맞춰진 ‘인간적이고 역사적인 형태’를 지녔다. 칼빈은 성경이 지니는 역설을 해명하기 위해 논리와 사변을 동원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호소한다. 이러한 칼빈의 전략은 칼케돈의 통찰을 계승하는 것으로 보인다. 칼케돈 신조는 영원하신 로고스이신 그리스도와 역사적 예수가 위격적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기독교

³⁴ 『기독교 강요』 1.5.1.

³⁵ 『기독교 강요』 1.13.1.

³⁶ Ford L. Battles, “God Was Accommodating Himself to Human Capacity,” *Interpretation* 31 (1977): 19-38. 하나님의 자기 맞추심 사상은 초대교부들의 사상에서부터 이어져왔는데,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특별히 주목받았다. 특히 칼빈은 이것을 심화하고 발전시켜서 자신의 신학 전체를 관통하는 해석적 원리로 삼았다. 신정우, “칼빈의 계시론”, 한국칼빈학회 편, 『칼빈 신학개요』 (서울: 두란노 아카데미, 2009), 49-68은 칼빈의 자기 맞추심 사상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고 있다. 신적 자기 맞추심 사상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보완하는 보다 최근의 논의는, Jon Balsarak, *Divinity Compromised: A Study of Divine Accommodation in the Thought of John Calvin* (Dordrecht: Springer, 2006); Arnold Huijgen, *Divine Accommodation in John Calvin's Theology: Analysis and Assessment*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1)을 참고하라.

론적 역설의 신비를 고백하고 표명함으로써, 신적인 면과 인간적인 면을 포함하는 역설적 형태를 띠는 기독교 신학의 권위 있는 표준들을 인간의 이성으로 분해하고 분석하여 완전하게 파악하려고 시도하는 모든 형태의 사변을 거부하였다. 기독교론적 역설은 기독교 진리의 다른 역설들의 전형이며 성경의 권위는 그리스도로부터 파생된 것임을 감안할 때,³⁷ 이 통찰은 성경론에 있어서도 유효하다. 칼빈은 성경의 신적 권위와 인간적 형태가 지닌 신비와 역설을 논리적 해명으로 접근하기보다 성령의 증거 사역에 호소함으로써 칼케돈의 신앙고백적 전통의 맥락에서 성경론을 풀어 내고 있다.³⁸

칼빈의 성경론에서 성령사역의 중요성은 ‘말씀하시는 하나님’(Deus loquens)에 대한 칼빈의 거듭된 강조에서도 엿볼 수 있다. 칼빈에게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한 입까지도 친히 여”³⁹셔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들려오는 것처럼”⁴⁰ 여겨야 한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칼빈 성경론의 출발점이며, “성경에 대한 최고의 증거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말씀하신다(Dei loquentis persona)는 사실로부터 인출된다.”⁴¹ 다시 말해서, 성경이 지니는 신적 위엄은 그 자체의 물리적 속성상 신성을 지니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고백되는 바와 같이, 성경이 기독교 신앙과 신학의 최종적인 판단기준으로서의 권위를 지니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the Holy Spirit speaking in the Scripture)”⁴²

³⁷ Donald G. Bloesch, *A Theology of Word and Spirit*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1992), 이용원 역, 『말씀과 성령의 신학』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320-21.

³⁸ 칼케돈의 고백적 전통은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가 확정하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전제로 하여 인성이 그리스도의 위격 안에서 신성과 혼합되거나 변화되거나 분열되지 않고 연합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한다. 마찬가지로 칼빈의 성경론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위엄과 권위를 갖는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이것이 인간의 언어와 글로 인간의 수준에 맞추어 낮아졌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한다. 이 요점이 분명하게 언급되어야 함을 지적해주신 이승구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³⁹ 『기독교 강요』 1.6.1.

⁴⁰ 『기독교 강요』 1.7.1.

⁴¹ 『기독교 강요』 1.7.4.

으로 인한 것이다. 참으로 성령 하나님의 권능과 사역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글과 언어의 형태를 입는 자기 맞추심의 역사가 불가능했을 것이며 또한 성경이 우리의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높여지고 들려지는 일이 불가능할 것이다.

이와 같이 칼빈에게 하나님이 스스로를 맞추신 말씀인 성경은 성경의 역사와 분리할 수 없는 관계를 지닌다. 성경과 말씀을 밀접하게 연관 시킴으로써 칼빈은 로마 가톨릭주의와 개신교 신비주의의 오류에 빠지지 않고 개혁주의 신학 특유의 균형을 모색한다. 칼빈이 추기경 사톨레토(Cardinal Jacopo Sadolet, 1477-1547)에게 보낸 답신에서 분명하게 표현했듯이, “[신비주의자들처럼] 말씀 없이 성경을 자랑하는 것만큼이나 [로마 가톨릭주의자들처럼] 성경 없이 말씀 자체만을 내세우는 것은 어리석은 것”⁴³이다. ‘말씀과 함께’(cum verbo)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한 칼빈의 강조는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적인 통찰로 자리 잡고 있다.⁴⁴

요약하자면, 칼빈에게 성경은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은 기록하신 하나님이 비참하고 절망적인 인간의 처지와 무능의 심연까지 낮아지고 맞추셔서 자신의 뜻과 의도를 깨달아 알게 하는 ‘하나님이 스스로 맞추어 주시는 말씀’이다. 인간의 처지와 상황으로 낮아지고 맞춰진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의 자기계시와 자기소통에 있어 효과적인 도구일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권능과 사역 때문이다. 우리는 여기로부터 해석학적 함축을 도출할 수 있다. 즉, 하나님의 자기 맞추심 사상은 성경을 읽는 우리의 해석학적 목표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42 나용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0), 23, 1장 10항.

43 John Calvin, “Reply by John Calvin to Letter by Cardinal Sadolet to the Senate and People of Geneva”, in *Tracts, Part I*, vol. 1 of *John Calvin: Tracts and Letters*, ed. and trans. Henry Beveridge (Edinburgh: Calvin Translation Society, 1844; reprint, Edinburgh: Banner of Truth, 2009), 37.

44 헨드리쿠스 베르코프는 성경과 말씀의 관계에 대한 개혁주의 신학의 이해를 루터파 신학과 비교하여 제시한다. 루터파 신학은 성령이 선포된 말씀 안에 실제적으로 임재한다는 성례전적 이해를 견지한다.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통하여’(per verbum) 일어나며 그것은 필연적이다. 반면, 개혁주의 신학은 성령 하나님의 주권성을 강조하며 성령이 말씀 밖에서도 역사하실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말씀은 성령의 도구이며 성령의 역사는 ‘말씀과 함께’(cum verbo) 일어난다. Hendrikus Berkhof, *The doctrine of the Holy Spirit* (Atlanta, John Knox: 1964), 황승룡역, 『성령론』 (서울: 성광문화사, 1985), 57-59.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인간의 정황과 관점과 죄의 현실에 맞추어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 분별하고 발견하는 것임을 상기시켜준다. 또한 자기 맞추심의 교리는 인간의 해석적 한계에 맞춰 스스로를 낮추신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언어와 글의 형태를 취할지라도 언제나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신비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각인시켜준다.⁴⁵

Ⅲ. 칼빈 신학에서 성경 해석과 성령의 관계

1. 권위와 해석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선언과 고백은 성경의 궁극적 권위에 대한 주장이면서 동시에 가장 근본적인 해석학적 원칙으로 작용한다.⁴⁶ 기독교 신앙과 실천의 유일하고 궁극적인 규범으로서 성경이 무엇이나는 권위의 논의는 불가피하게 해석의 문제를 야기한다. 왜냐하면 텍스트의 권위를 어떻게 인정하고 고백하느냐에 따라 해석학적 방향성과 방법론이 결정되고 해석학적 결과를 수반하기 때문이다.⁴⁷ 칼빈의 성경론에서 성경의 권위와 해석은 어떻게 연관되고 있는가?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 칼빈이 성경의 자증적 권위와 성령의 내적 증거라는 획기적 주장을 관철한 이유는 성경이 교회에 의해서만 신적 메시지로 인정되고 보존되고 해석된다고 주장하면서 성경의 권위와 해석을 전적으로 교회에 의존시킨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함이었다. 칼빈이 성경 권위의 자증성을 말할 때 성경의 권위를 그 내용과 밀접하게 연관시켰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주목해보자. 칼빈은 성경

⁴⁵ David C. Steinmetz, "John Calvin as an interpreter of the Bible," in *Calvin and the Bible*, ed. D. K. McKim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290.

⁴⁶ Charles M. Wood, *The Formation of Christian Understanding: An Essay in Theological Hermeneutics*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81), 39-41.

⁴⁷ Yu Carver T, "Hermeneutical Discussions Today and The Relevance of Calvin," 이태호 역, "오늘날의 해석학적 논의와 칼빈의 유의성", 「성경과 신학」 39 (2006): 432.

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은 교회의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고 하면서, “실제로 흰 것과 검은 것은 각각 그 색깔을, 그리고 단 것과 쓴 것은 그 맛을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이”⁴⁸ 성경은 그 내용을 통해서 신실함을 입증한다고 말한다. 달리 표현하자면, 성경의 권위와 내용은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성경의 권위는 성경의 내용과 무관하게 선언되거나 고백되어질 수 없고, 성경 내용의 신빙성 역시 그 신적 권위에 의해서 확정된다. 이러한 ‘성경의 권위와 내용 사이의 상관관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다. 성경의 신적 위엄은 오직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그것이 인쳐질 때에만”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⁴⁹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은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직접 조명”⁵⁰함으로써 가능해진다. 하나님의 “신적인 위엄의 확실한 능력이 성경 안에서 생생히 살아 움직이며(*vigere ac spirare*) 호흡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도 성령을 통해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⁵¹ 칼빈은 이렇듯 성경의 권위가 ‘성령의 능력으로 조명되는 내용’으로부터 확정된다고 주장함으로써 성경의 권위 있는 해석자로서 교회의 역할을 강조하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주장을 반박하고 대신 성경의 내용을 통해 성경의 권위를 보증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강조하였다. 로마 교회가 성경의 권위와 해석을 교회론적으로 정립한 것에 반대하여 칼빈과 종교개혁자들은 성령론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비록 ‘성경의 권위를 위한 성령의 증거’와 ‘성경의 해석을 위한 성령의 조명’이 개념상으로는 구분될 수 있지만, 칼빈의 성경론에서 이 둘은 그리 분명하게 나뉘어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칼빈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의 언약적 삶을 위한 구원경륜’이라는 하나의 과정과 목표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보다 통합적으로 바라보길 원해서일 것이다. 이런 이유와 맥락에서, 루터파

48 『기독교 강요』 1.7.2.

49 『기독교 강요』 1.7.5.

50 『기독교 강요』 1.7.5.

51 『기독교 강요』 1.7.5.

신학자 베르너 크루쉐(Werner Krusche, 1917-2009)는 칼빈의 성령론에 대한 그의 논문에서 성령의 내적 증거 사역을 성경의 형식적(외적) 권위에 대한 확신뿐만 아니라 실질적 내용의 이해와 확신까지 확대시킨다.⁵² 크루쉐에 따르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성경의 신적 권위를 확신시키는 것은 그 내용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을 하나님의 진리로 확고하게 신뢰하도록 함을 통해서이다.⁵³

성경의 권위와 해석 사이의 밀접한 관계는 기독교 강요와 칼빈의 주석들 사이의 해석학적 순환구조에서도 그 단서를 찾아볼 수 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 성경연구와 관련된 기본적인 가르침과 여러 가지 신학적 논쟁들이나 교리적 핵심들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는데, 이는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신자들이 복잡한 종교적, 신학적 논쟁들로 인해 곤란을 겪거나 혼란에 빠지지 않고 성경을 읽어들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었다.⁵⁴ 기독교 강요가 지닌 이러한 기능과 목적으로 인해 그의 주석들은 신학적 논쟁에 지면을 낭비하지 않고 성경본문 자체의 단순하고 명백한 의미를 밝히는 데 할애될 수 있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처음 출판된 이후 거듭 증보판이 나오는 동안 로마서 주석을 필두로 한 그의 주석들도 출판되면서 두 종류의 저작은 교호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인다.⁵⁵ 기독교 강요와 주석들 사이의 상보적 관계 속에서, 특정한 본문들에 대한 주석들과 설교들은 거듭되는 기독교 강요의 개정판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한편,⁵⁶ 기독교 강요의 신학적 통찰은 특정한 성경본문의 주

⁵² Werner Krusche, *Das Wirken des Heiligen Geistes nach Calvin* (Goe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57), 202-218.

⁵³ 이신열, “이원론적 성령 사역?: 성령의 증거와 조명에 관한 칼빈의 견해를 중심으로”, 『조직신학연구』 (2008): 81-82.

⁵⁴ Richard A. Muller, “Calvin and the ‘Calvinist’: Assessing Continuities and Discontinuities Between the Reformation and Orthodoxy (Part Two),” *Calvin Theological Journal* 31/1 (1996):136.

⁵⁵ Steinmetz, “John Calvin as an Interpreter of the Bible,” 291. 기독교 강요의 전 출판본의 구조를 비교하고 신학적 발전과 변화를 추적한 연구로는 Frans H. Breukelman, *The Structure of Sacred Doctrine in Calvin's Theology*, ed. R. H. R. Brouwer, trans., M Kessler (Grand Rapids: Eerdmans, 2010)을 참고하라. 기독교 강요와 주석 사이의 관계에 대한 국내 학자의 연구로는 한성진, “칼빈의 기독교 강요와 주석과의 관계 연구: 어거스틴 사용을 매개로 하여”, 개혁주의 학술원 편, 『칼빈과 성경』 (부산: 고신대 출판부, 2008), 177-97을 참고하라.

⁵⁶ 1535년 라틴어 초판 기독교 강요는 총 6장이었던 것이 라틴어 2판에서는 17장, 3판

석과 해석에 영향을 미쳤다. (기독교 강요에서 제시된) 성경의 신적 권위에 대한 확신과 (주석들을 통해 제시된) 하나님의 진리인 성경의 내용에 대한 확신도 이러한 기독교 강요와 주석들 사이의 역동적 순환구조 안에서 상호적으로 연결된다고 말할 수 있다.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 칼빈의 성경권위 사상은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그리스도인의 실천’을 위한 출발선이 되었다. 칼빈에게 기독교 강요는 기독교 진리들을 교리적으로 집대성하여 성경을 대체하는 신학대전으로 서가 아니라, 신자들이 성경을 읽을 때 신학적 논쟁들로 인해 방해받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내서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의도되었다. 따라서 칼빈 신학에서 성경해석에 대한 논의가 성경권위 논의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 권위에 대한 주장과 고백이 그에 걸맞은 해석학적 원칙을 요구하는 것 역시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2. 성경 자해석의 원칙과 성경의 명료성

루터에 의해 주창된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은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실천을 판단할 궁극적인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권위에 관한 질문에 대한 종교개혁적 답변이었다.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신앙과 실천의 유일한 규범이고 하나님과 구원의 은혜를 아는 참된 지식의 유일한 원천이자 교회의 증언과 가르침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임을 천명하였다.⁵⁷ ‘오직 성경’이라는 권위의 원칙은 필연적으로 해석의 원칙을 배태하는데, 그것이 루터의 해석학 원칙인 ‘성경 자해석의 원칙’(*Sacra Scriptura sui ipsius interpres*)이다. 성경 자해석의 원칙은 성경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기소통적 행위이며, 따라서 성경을 읽거나 듣는 자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명

에서는 21장으로 늘어났고, 1559년 라틴어 최종판은 무려 80장에 달하게 된다.

⁵⁷ James I. Packer, “‘Sola Scriptura’ in History and Today,” in *God’s Inerrant Word: An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Trustworthiness of Scripture*, ed. J. W. Montgomery (Minneapolis: Bethany Fellowship, 1974), 48-49.

백한 권위로 성경본문을 해석해주는 것은 다름 아닌 성경 자체라는 해석 원리이다. 이는 로마교회에 의해 주장된 ‘무오한 해석적 권위로서 교회와 교도권의 절대적 필요성’에 대한 종교개혁적 비판이자 대안이었다. 로마 교회가 주장하는 ‘교회에 의한 해석’은 ‘성경의 모호성’을 전제로 한다. 이에 대하여 루터는 ‘성경이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바에 있어서 분명하다’는 성경의 명료성으로 맞섰다.⁵⁸ 성경 자해석의 원칙과 성경의 명료성은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성과 우위성’에 대한 종교개혁자들의 확신을 담아내고 있는 해석학적 원칙이며, 권위와 해석의 밀접한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성경 자해석의 원칙과 성경의 명료성은 종교개혁의 가장 치열한 전장(battlefield)이 성경의 형식적 권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성경 해석의 문제에서 펼쳐지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지표이다. 종교개혁의 파격적인 해석학적 원칙이 몰고 온 파장은 심대했다. 새로운 해석학적 원칙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스스로 성경 본문을 읽고 연구함으로써 자신들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살라는 부르심을 받는다는 선언으로 받아들여졌다.⁵⁹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특권과 책임은 특정한 사제집단으로부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로 옮겨지게 되었다. 성경 자해석의 원칙과 성경의 명료성 주장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 의존하며 수행해야 하는 ‘해석학적 부르심’의 당위성과 가능성을 재천명한 선언이었다. 이런 점에서 종교개혁은 그리스도인 개개인과 믿음공동체에게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성경읽기의 실천을 도래

⁵⁸ 정기철 교수에 따르면, 종교개혁적 해석원리로서 루터에 의해 주장된 성경의 명료성은 아우구스티누스 해석학의 근본원리를 따른 것이다. 루터는 인문주의자(에라스무스)의 ‘성경 모호성’ 주장을 반박하며 성경의 명료성을 주장하고 ‘단순성과 명료성’(brevitas et facilitas)을 성경해석의 원칙으로 채용하였다. 루터는 명료성을 외적 명료성과 내적 명료성으로 구분하였는데, 전자는 성경 자해석의 원칙으로, 후자는 성령의 조명에 의한 해석이라고 설명하였다. 정기철, “칼빈의 성경해석학에 대한 현대적인 의미 고찰”, 제19차 한국복음주의 조직신학회 발표논문 (2009년 11월): 1-15.

⁵⁹ 따라서 성경 자해석의 원칙과 성경 명료성은 성경본문이 주해와 해석의 여지가 없을 만큼 명료하고 단순해서 본문의 이해를 위해 고된 해석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는 해석학적 나타함의 변명과는 무관하다. Daniel J. Treier, “Scripture and Hermeneutics,” in *The Cambridge Companion to Evangelical Theology*, eds. T. Larsen & D. J. Treier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35.

시킨 “해석학적 사건(a hermeneutical event)”⁶⁰이라 할 수 있다.

칼빈의 성경해석학⁶¹은 ‘오직 성경’의 종교개혁 원칙과 이로부터 도출된 성경 자해석과 성경의 명료성의 해석학적 원리를 수용하고 계승한다.⁶² 칼빈은 기독교 강요나 주석들에서 해석상 모호하거나 난해한 성경 본문은 다른 본문에 나타난 동일한 의미에 비추어 보거나, 명확한 다른 본문의 해석을 활용하거나, 혹은 성경 전체의 문맥을 통해서 가장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의미를 찾았다.⁶³ 칼빈의 해석학적 방법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것은, 그의 첫 주석인 로마서 주석의 서문에서 밝히는 ‘명료한 간결성(*perspicua brevitae*)’의 방식이다.⁶⁴ 칼빈은 성경을 해석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성경 저자의 생각(*mentem scriptoris*)을 밝히는 것이며,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주석은 장황함과 난해함으로 독자들이 저자의 생각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서는 안 되고 ‘간결하고 용이한’(*brevitas et facilitas*) 화법을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⁶⁵ 루터가 중세의 사중적 해석방식(문자적, 풍유적, 도덕적, 신비적 해석)을 따른 것과 대조적으로, 칼빈은 역사적-문법적 해석방식을 선호하여 실제로 성경을 주해하면서 성경 언어의 일반적 사용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의미를 밝혔다는 사실은 ‘명료한 간결성’을 지향하는 그의 해석방법론의 단초를 보여준다.⁶⁶

⁶⁰ Werner G. Jeanrond, *Theological Hermeneutics: Development and Significance* (New York, NY: Crossroad, 1991), 30.

⁶¹ 칼빈이 해석학적 방법론에 관해 상세히 다룬 논문을 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용한 해석적 방식도 현대의 해석학적 이론들과 비교하면 결코 방대하거나 체계적이라고 보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칼빈 연구자들은 칼빈의 신학 전반을 관통하는 일관되고 체계적인 해석학적 통찰과 방법론이 있음을 밝혀주고 있다. 칼빈의 신학적 해석학에 대한 통찰력 있는 연구서로, Peter Opitz, *Calvins theologische Hermeneutik* (Neukirchener Verlag, 1994)을 참고하라.

⁶² 칼빈의 해석학적 방법인 *Brevitas et facilitas*가 ‘오직 성경’의 원칙으로부터 기인한 성경 자해석의 원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주장과 논거는, 안명준, “존 칼빈의 신학적 해석학: Scriptura Sui Ipsius Interpres 원리를 사용한 Brevitas et Facilitas 방법론”, 『장로교회와 신학』 1 (2004): 167-90을 참고하라.

⁶³ 구체적인 예는 안명준, “존 칼빈의 신학적 해석학”, 172-177을 보라.

⁶⁴ John Calvin, *Commentary on the Epistle to the Romans*, ed. & trans. John Owen, The AGES Digital Library Commentary (Albany, NY: AGES Software, 1998), 16.

⁶⁵ 앞에서 언급한 기독교 강요와 주석들 사이의 상보적 순환관계가 시사하는 바도 기독교 강요를 통해 교리적 논쟁이나 신학적 논제들을 다룸으로써 성경 주석의 간결성을 가능케 하였다는 것이다.

우리는 칼빈의 해석적 접근방식이 내포하고 있는 신학적 함축을 해석학적 측면과 구원론적/성령론적 측면에서 이끌어낼 수 있다. 첫째, 칼빈의 해석학적 태도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인식과 고백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성경해석에 있어서 아무리 본문의 언어가 불명확하거나 모순되어 보일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의미를 찾기 위해 성경이 말하는 방식과는 다른(혹은 더 나아 보이는) 개념이나 사변들을 본문에 덧입혀서는 안된다는 해석학적 태도를 낳는다. 인간 언어의 형태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언어적-문법적 사용방식 그대로 존중받고 받아들여져야 한다. 또한 이것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해석적 기교나 사변적 이성에 의해 인위적으로 성취될 수 없고, 오직 성령의 조명의 사역을 통해서 가능해짐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둘째, 성경의 명료성은 구원경륜을 성취하시기 위해 그리스도인의 해석 과정에 주권적으로 개입하시고 동행하시며 성화시키시는 성령 사역을 떼어놓고는 성립할 수 없는 원칙이다. 성경의 신적 위엄과 권위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과 분리될 수 있는 성경 자체의 속성이 아닌 것처럼, 성경의 명료성도 성령의 사역과 분리된 본문 자체의 형식적이거나 자연적 속성으로서 주장된 것이 아니다. 성경 자체의 해석의 원칙에서 스스로를 해석하는 것은 결국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스스로를 해석해보이시는 말씀이신 하나님”⁶⁷이신 것처럼, 성경의 명료성은 구원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자기소통적 역사를 이루시는 성령 사역의 소산이다. 성경의 명료성은 성령이 우리에게 성경의 신적 권위에 대한 확신을 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 공동체의 해석학적 미성숙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성경

⁶⁶ 이러한 칼빈의 성경해석의 방식은 기독교 강요의 저작 방식과 궤를 같이 한다. 기독교 강요의 초판(1536) 서문에서 칼빈은 자신의 저술 의도가 “간단한 그리고, 말하자면, 소박한 가르침의 형식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밝힌다. John Calvin,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totam ferè pietatis summā & quicquid est in doctrina salutis cognitu necessarium complectens: omnibus pietatis studiosis lectu dignissimum opus, ac recens editum Praefatio ad Christianissimum regem franciae, qua hic ei liber pro confessione fidei offertur* (in Latin) (Basileae: T. Platteru & B. Lasium, 1536), 문병호 역, 『라틴어 직역 기독교 강요』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9), 2.

⁶⁷ John Webster, *Holy Scripture: A Dogmatic Sketch*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94.

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안과 밖에서 역사하신다는 확신의 표현이다. 따라서 성경의 명료성을 주장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믿음 공동체로 하여금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그에 합당한 실천의 삶을 살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경륜에 참여하여 완성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경험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3. 참된 성경 해석에 있어서 성령의 중심성

칼빈 신학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마디로 말하기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칼빈의 확고한 인식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칼빈에게 신학이란 중세 스콜라주의처럼 기독교 신앙을 개념과 범주와 논리의 체계로 정리하여 공식화하고 조직화하는 작업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청종하기 위한’ 지속적인 신학적 해석학이다.⁶⁸ 신학에 대한 칼빈의 이러한 입장은 그의 신학 전반을 꿰뚫는 단일한 원리나 중추적 교리를 찾으려는 노력들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주된 이유로 작용한다. 또한 ‘명료한 간결성’에 대한 강조에도 불구하고 칼빈에게서 체계적인 해석학적 이론의 발전을 찾아보기 힘든 것도 신학적 해석학의 목표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뒤편으로써 특정한 해석학적 체계를 통해 달성될 여지를 애당초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추론해볼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고 신학의 목표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듣기’로 갱신하기 위해, 칼빈과 종교개혁자들은 중세 로마교회의 신학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쇄신하는 일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 노력은 로마교회 신학의 ‘성령과 교회’라는 구조로부터 종교개혁 신학의 ‘성령과 성경’이라는 구조로의 변화를 가져왔다.⁶⁹

⁶⁸ Dirk J. Smit, “Rhetoric and Ethic? A Reformed Perspective on the Politics of Reading the Bible,” 388.

⁶⁹ 김은수도 이러한 신학적 구조의 변혁을 언급하고 있다. 김은수, “칼빈 신학에 있어 성경과 성령의 관계성에 관한 고찰”, 『성경과 신학』 45 (2008): 94.

중세 로마교회의 삼위일체론적, 성령론적, 그리고 교회론적 사유는 ‘성령과 교회’라는 신학적 구조를 형성하였다. 이는 로마교회가 계승하는 라틴서방교회의 전통, 특히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과 성령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 어거스틴의 신학을 따르는 중세 로마교회는 성령을 ‘성부와 성자의 사랑의 결속’(Amor Patris et Filii)으로 이해하였고, 그 결과 성령을 ‘사랑’(Love) 혹은 ‘선물’(Gift)이라는 용어로 칭하였다.⁷⁰ 이러한 칭호는 성령이 삼위일체의 내적 사랑(성자에 대한 성부의 사랑과 성부에 대한 성자의 사랑)임을 가리키며, 더 나아가 교회의 내적인 활동의 원리임을 의미했다. 즉, 성령은 삼위일체의 관계 안에서 성부와 성자의 내적 사랑이자 삼위 간의 단일성의 원리이듯이, 구원경륜에서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연합하는 원리이며 능력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로마교회의 이해는 신학의 핵심축으로 기능하는 삼위일체론에 있어서 구조적인 문제를 야기했다. 성령은 마땅히 받아야 할 주목을 받지 못한 채 삼위일체 안에서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떠받드는 종속적 위치로 전락하게 되고, 심지어 위격적 특성이 사라지고 관계 자체나 혹은 관계를 떠받드는 활력 등으로 비인격화 되었다. 삼위일체론적 구조의 왜곡은 교회의 삶과 실천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 중세 교회는 성령을 ‘교회의 영혼’이라고 불렀다.⁷¹ 성령이 교회의 사역과 직무의 원동력이자 활력의 원천이라는 이해는 일면 타당하지만 중세교회는 교회에 내재하는 성령의 임재를 당연시함으로써 성령을 교회에 순치(domestication)시켰다. 성령의 임재와 활동은 교회의 임재와 활동과 구분되지 않았고, 성령의 역할과 활동은 교회의 형식적이고 성례중심적인 사역과 직무에 의해서 잠식되어 갔고 결국 교회가 성령을 대체하는 결과를 낳았다.

⁷⁰ 중세 신학에서 어거스틴의 표현을 따라 성령을 ‘사랑’이나 ‘은사(선물)’로 묘사하는 것은 피터 롬바르드의 명제집(Books of Sentences)이나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Summa Theologica)에서 흔히 발견된다. 하나님의 사랑(혹은 은사)으로 성령을 이해한 중세 성령론에 대한 개관적인 설명은, Alasdair I. C. Heron, *The Holy Spirit: The Holy Spirit in the Bible, the History of Christian Thought, and Recent Theology* (Philadelphia: Westminster, 1983), 87-93을 참고하라.

⁷¹ 어거스틴이 “성령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관계는 우리의 영혼과 몸의 관계와 같다”고 말한 이후 교회의 영혼으로서의 성령에 대한 진술은 로마 가톨릭의 교회론에 있어서 현재까지 확고한 자리를 차지한다. Heron, *The Holy Spirit*, 94-98.

칼빈과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의 영혼’인 성령의 지배를 직접적으로 받는다는 로마 교회가 ‘성령과 교회’라는 신학적 구조 속에서 스스로를 성경 밖(혹은 위)에 두고 교회 전통의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우위에 놓는 것을 맹렬하게 비난하였다. 로마교회의 신학적 구조에서 그리스도인들과 믿음 공동체의 영적인 삶은 구원경륜을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께 달린 것이 아니라, 형식적 기관인 교회가 행하는 객관적이고 초자연적인 성례들에 의존하게 되었다. 로마교회의 ‘성령과 교회’의 신학적 구조의 대안으로 종교개혁자들(특히, 칼빈)이 제시한 대안은 ‘성령과 성경’의 신학적 구조이다. 이 구조에서 성령의 임재와 역사는 교회에 내재화(internalization) 되지 않고, 외재적인(external)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뤄진다. 교회는 성경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증거를 받는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성경’의 권위 아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칼빈은 이렇게 기술한다. “우리의 반대자들은 교회의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 밖에 둔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과 밀착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그것이 말씀에서 분리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⁷²

종교개혁의 ‘성령과 성경의 구조’에서 교회는 성경에 대한 권위 있는 해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듣는 공동체’가 된다. 그리고 성경의 참되고 권위 있는 해석자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이 된다. 칼빈은 로마교회가 성경 해석에 있어 가장 높은 권위를 부여하는 공의회들에 대하여 “어떤 한 회의의 투표에 의해 채택되는 성경 해석은 반드시 참되고 확실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⁷³라고 말한다. 로마교회가 공의회는 성경 해석권을 주장함으로써 의도한 것은 연옥, 성자의 중보기도, 고해성사 등과 같이 비성경적인 교리를 만들어내고 정당화하기 위함이었다.⁷⁴ 그것이 설령 로마교회에 의해서 권위 있는 성경의 해석이라고 불릴지라도 실상은 진정한 성경의 해석이라 할 수 없다. 그렇기에 칼빈은 공의회는 해석에 최고의 신빙성을 두는 것은 “하나

72 『기독교 강요』 4.8.13.

73 『기독교 강요』 4.9.13.

74 『기독교 강요』 4.9.14.

님 말씀의 유효성을 사람의 변덕스러움에 의존케⁷⁵ 하는 일에 불과하다고 일갈한다.

칼빈에게 최고의 신빙성을 둘 수 있는 참된 성경 해석은 믿음 공동체의 해석적 활동을 주도하시는 참된 교사이신 성령의 조명을 받는 해석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불가분리적인 끈(*individuo nexu*)으로 연결되기를 원하시⁷⁶”는데, 말씀과 성령 사이의 이러한 결속은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⁷⁷라고 말할 정도로 강하다. 선생이 없는 학교는 무용한 것처럼, 성령의 사역이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학교”⁷⁸인 성경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성령은 “우리의 내적인 스승(*interior magister*)”이 되어서 우리의 귀를 여시고 마음을 깨닫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삶 속으로 꿰뚫고 들어오게 하신다.⁷⁹ 칼빈이 성경의 내용을 가리킬 때 의도적으로 사용한 ‘가르침’(*doctrina*)이란 표현은 스승과 제자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를 전제로 하는 용어이다.⁸⁰ 성경을 통해서 하늘의 교리를 맞보는 것은 ‘성령과 제자 사이의 지속적인 가르침과 배움의 인격적 관계와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성경의 학교에서 학생이 된다는 것은 곧 성령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학교는 “성령의 학교”⁸¹와 다르지 않다.

이렇듯 칼빈은 신학의 구조에 있어서 성령의 위치를 바로 잡고 성경 해석에 있어서 성령의 주도권과 중심성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칼빈이 말하는 성경해석에 있어서 성령의 중심성은 성령의 해석이 인간의 해석적

75 『기독교 강요』 4.9.14.

76 『기독교 강요』 4.8.13.

77 『기독교 강요』 3.2.33.

78 『기독교 강요』 1.6.4.

79 『기독교 강요』 2.2.20; 3.2.34.

80 Hennie W. Rossouw, “Calvin’s Hermeneutics of Holy Scripture,” in *Calvinus Reformator: His Contribution to Theology, Church and Society*, ed. Institute for Reformational Studies (Potchefstroom, South Africa: Potchefstroom University for Christian Higher Education, 1982), 158.

81 『기독교 강요』, 3.21.3.

역할을 억압하거나 배제하거나 축소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반대로 성령이 단순히 해석의 보조자로 일하신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칼빈은 해석에 있어서 성령의 관여를 ‘직접성’보다는 ‘매개성’으로 설명한다. 성경을 배제한 채 성령의 직접 계시를 추구하는 광신도들을 비판하면서, 칼빈은 성령의 일이 “전혀 새롭고 아직 들어보지도 못한 계시들을 만들어 내거나 혹은 우리로 하여금 받은 교리로부터 떠나도록 하기 위해 새로운 종류의 교리를 조작해 내는 것이 아니라 다만 복음에 추천된 교리를 우리의 마음 속에 인쳐 주는”⁸² 것임을 분명히 한다. 성경의 저자 (*Scripturarum author*)이신 성령은 “자신이 성경에서 표현하신 자신의 진리에 굳게 결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합당한 존경과 위엄을 받게 될 때에만 비로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신다.”⁸³

성령이 해석에 관여하는 매개적 방식은 구원경륜 안에서 성령이 일하는 방식과도 관련이 있다.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연합시키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경륜의 완성으로 이끄신다.⁸⁴ 구원경륜을 위한 사역에서 성령이 일하시는 방식은 독특하게 나타난다. 성령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를 그리스도께 연합시키시고 피조물들을 하나님께 연합시키신다.⁸⁵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성령은 방편(*means*)을 사용하시며 성경은 성령이 자신을 굳게 결속시키시고 구원경륜을 위해 일하시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편이다.

성령과 말씀의 결속에 대한 칼빈의 강조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경 해석이 다름 아닌 ‘성경 텍스트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라는 해석학적 결론에까지 나아간다. ‘문자’(letter)와 ‘영’(spirit)은 광신자들의 주장처럼

⁸² 『기독교 강요』, 1.9.1.

⁸³ 『기독교 강요』, 1.9.3.

⁸⁴ 『기독교 강요』, 3.1.1. 성경과 관련하여 성령사역의 핵심이 내적 증거라면, 성령의 구원론적 사역의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신과 효과적으로 연합시키시는 띠(*vinculum*)’로서의 사역이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하도록 내적으로 증거하는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연합시키시고 복음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하는 성령이다. 칼빈의 신학에서 성경론과 구원론은 성령의 사역을 매개로 이처럼 긴밀하게 연관된다.

⁸⁵ Catherine Mowry LaCugna, *God For Us: The Trinity and Christian Life* (New York: HarperCollins, 1991), 이세형 역, 『우리를 위한 하나님: 삼위일체와 그리스도인의 삶』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8), 506.

이분법적으로 단절된 실체가 아니라, 성령의 일하시는 방식 안에서 강하게 결속되어 있다. 역사적-문법적 해석의 타당성은 성경 메시지의 영적 의미가 성령이 자신을 굳게 결속시킨 성경본문에 대한 바른 해석을 통해서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한다는 사실로부터 찾아져야 한다.

칼빈은 성경 해석에 있어서 성령의 중심성을 회복하고 강조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성경의 해석이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임을 환기시켜주었다. 성경을 하나님에 의해서 발하여진 음성으로 듣게 하고,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들이도록 준비시키는 분은 성령이시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성경읽기는 우리의 해석을 성화시키셔서 구원경륜을 이루시는 성령의 권능과 역사를 통해서만 열려지는 신비이다.

IV. 나가기

성경의 권위와 해석, 그리고 이 둘과 뗄 수 없이 연결된 성령의 중심성에 대한 칼빈의 심오한 통찰은 개혁주의 전통의 성경관과 성경해석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본문 자체에 대한 존중과 집중, 인간의 해석학적 죄와 한계에 대한 인식, 그리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에 대한 깊은 의식 등은 개혁주의 성경해석과 영성의 골격을 이루는 자양분이 되었다. 칼빈과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의 원칙과 그에 따른 해석학적 원리, 즉 성경 자체의 원칙과 성경 명료성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을 읽고 적용하는 해석학적 노력을 더욱 철저히 행하라고 요청한다. 그들은 우리에게 성경에 대한 권위적인 교회의 해석을 맹목적으로 따르거나 성령의 직접 계시나 신비적 경험을 찾는 대신, 오직 성경본문과 치열하게 씨름하면서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촉구한다.

칼빈은 ‘구원경륜을 위한 하나님이 스스로 맞추어 주시는 말씀으로서의 성경’과 ‘말씀과 성령의 긴밀한 결속’이라는 신학적 통찰을 통해 개혁주의 전통의 성경해석을 매우 역동적인 과정으로 만들었다. 성경은 우리의 욕망과 이해관계와 지적인 한계가 투영된 내적인 텍스트가 아니라, 우리 밖에서—그러나 우리를 위해—들려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은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⁸⁶과 같이 우리의 안과 밖의 거짓된 우상을 부서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복적(disruptive)이며 변혁적(transformative)인 말씀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게 성경 읽기는 자신을 설득하고 합리화하고 만족시키는 작업이 아니라, 자신의 해석학적 우상을 깨뜨리고 자신의 욕망과 의지를 거슬러 전복적이며 변혁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귀 기울이는 작업이다. 그리스도인의 성경읽기는 명료한 간결성으로 성경본문에 집중하고 귀 기울이는 일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와 역설을 받아들이고 놀라워하고 감탄하는 일이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해석학적 혼돈의 시대에 참된 성경 해석과 성경적 삶의 실천을 고민하는 복음주의자들에게 칼빈은 이러저러한 신학적 체계가 아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자 ‘성령이 자신을 굳게 결속시켜 구원경륜을 성취하는 언약의 책’에 귀 기울이며 그에 따라 믿고 행하라고 말한다. 그에게서 우리는 ‘오래된 미래’를 발견한다.

⁸⁶ 단 2:34, 개역한글번역(KRV)

참고문헌

- Battles, Ford L. “God Was Accommodating Himself to Human Capacity.” *Interpretation* 31 (1977): 19-38.
- Berkhof, Hendrikus. *The doctrine of the Holy Spirit*. 황승룡 역. 『성령론』. 서울: 성광문화사, 1985.
- Bloesch, Donald G. *A Theology of Word and Spirit*. 이용원 역. 『말씀과 성령의 신학』.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 Bouwisma, William J. “Calvin and the Renaissance Crisis of Knowing.” *Calvin Theological Journal* 17/2 (1982): 190-211.
- Breukelman, Frans H. *The Structure of Sacred Doctrine in Calvin's Theology*. Ed. R. H. R. Brouwer. Trans. M. Kessler. Grand Rapids: Eerdmans, 2010.
- Calvin, John.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totam ferè pietatis summã & quicquid est in doctrina salutis cognitu necessarium complectens: omnibus pietatis studiosis lectu dignissimum opus, ac recens editum Praefatio ad Christianissimum regem franciae, qua hic ei liber pro confessione fidei offertur* (in Latin). Basileae: T. Platteru & B. Lasium, 1536. 문병호 역. 『라틴어 직역 기독교 강요』.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9.
- _____.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in libros quatuor nunc primum digesta, certisque distincta capitibus, ad aptissimam methodum: aucta etiam tam magna accessione ut propemodum opus novum haberi possit* (in Latin), 5th ed. Genevae: Robert I. Estienne, 1559. 고영민 역. 『기독교 강요』. 서울: 기독교문사, 2006-8.
- _____. “Reply by John Calvin to Letter by Cardinal Sadolet to the Senate and People of Geneva.” *In Tracts, Part I, vol. 1 of John Calvin: Tracts and Letters*. (Ed. & Trans.) Henry Beveridge. Edinburgh: Calvin

- Translation Society, 1844; reprint, Edinburgh: Banner of Truth, 2009, 26-68.
- Dowey, Jr. Edward A. "The Word of God as Scripture and Preaching." In *Later Calvinism: International Perspectives*. Ed. W. Fred Graham. Kirksville, Mo: Sixteenth Century Journal, 1994, 5-18.
- Goldsworthy, Graeme L. "'Thus Says the Lord': The Dogmatic Basis of Biblical Theology." In *God Who is Rich in Mercy: Essays Presented to Dr. D. B. Knox*. Eds. P. T. O'Brien & D. G. Peterson. Grand Rapids, Mich: Baker Book House, 1986, 25-40.
- Heron, Alasdair I. C. *The Holy Spirit: The Holy Spirit in the Bible, the History of Christian Thought, and Recent Theology*. Philadelphia: Westminster, 1983.
- Jeanron, Werner G. *Theological Hermeneutics: Development and Significance*. New York, NY: Crossroad, 1991.
- Krusche, Werner. *Das Wirken des Heiligen Geistes nach Calvin*. Goe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57.
- McGrath, Alistair E. *The Genesis of Doctrine: A Study in the Foundations of Doctrinal Criticism*. Oxford, UK: Basil Blackwell, 1990.
- Muller, Richard A. "Calvin and the 'Calvinist': Assessing Continuities and Discontinuities Between the Reformation and Orthodoxy (Part Two)." *Calvin Theological Journal* 31/1 (1996): 125-60.
- Murray, John. *Calvin on Scripture and Divine Sovereignty*. 나용화 역. 『칼빈의 성경관과 주권사상』.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2.
- Norberg_Hodge, Henena. *Ancient Futures: Learning from Ladakh*. 양희승 역. 『오래된 미래: 라다크로부터 배우다』. 서울: 중앙북스, 2007.
- Packer, James I. "'Sola Scriptura' in History and Today." In *God's Inerrant Word: An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Trustworthiness of Scripture*. Ed. J. W. Montgomery. Minneapolis, Minn: Bethany Fellowship, 1974,

43-62.

- LaCugna, Catherine Mowry. *God For Us: The Trinity and Christian Life*. New York: HarperCollins, 1991. 이세형 역. 『우리를 위한 하나님: 삼위일체와 그리스도인의 삶』.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8.
- Rossouw, Hennie W. “Calvin’s Hermeneutics of Holy Scripture.” In *Calvinus Reformator: His Contribution to Theology, Church and Society*. Ed. Institute for Reformational Studies. Potchefstroom, South Africa: Potchefstroom University for Christian Higher Education, 1982: 149-91.
- Smit, Dirk J. “Rhetoric and Ethic? A Reformed Perspective on the Politics of Reading the Bible.” In *Reformed Theology: Identity and Ecumenicity II*. Eds. W. M. Alston Jr. & M. Welker. Grand Rapids: Eerdmans, 2007: 385-418.
- Steinmetz, David C. “John Calvin as an Interpreter of the Bible.” In *Calvin and the Bible*. Ed. D. K. McKim.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282-91.
- Treier, Daniel J. “Scripture and Hermeneutics.” In *The Cambridge Companion to Evangelical Theology*. Eds. T. Larsen & D. J. Treier.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35-49.
- van den Belt, Henk. *The Authority of Scripture in Reformed Theology: Truth and Trust*. Leiden, Netherlands: Brill, 2008.
- van Ruler, Arnold A. *Calvinist Trinitarianism and Theocentric Politics: Essays Toward a Public Theology*. Trans. John Bolt. Lewiston, NY: Edwin Mellen, 1989.
- Webster, John. *Holy Scripture: A Dogmatic Sketch*.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 Wood, Charles M. *The Formation of Christian Understanding: An Essay in Theological Hermeneutic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1.
- Yu, Carver T. “Hermeneutical Discussions Today and The Relevance of

- Calvin.” 이태호 역. “오늘날의 해석학적 논의와 칼빈의 유의성”. 『성경과 신학』 39 (2006): 418-46.
- 김은수. “칼빈 신학에 있어 성경과 성령의 관계성에 관한 고찰”. 『성경과 신학』 45 (2008): 72-111.
- 김종희. “칼빈의 예정론”. 『칼빈 신학개요』. 한국칼빈학회 편. 서울: 두란노 아카데미, 2009: 125-39.
- 나용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0.
- 신정우. “칼빈의 계시론”. 『칼빈 신학개요』. 한국칼빈학회 편. 서울: 두란노 아카데미, 2009: 49-68.
- 안명준. “존 칼빈의 신학적 해석학: Scriptura Sui Ipsius Interpres 원리를 사용한 Brevitas et Facilitas 방법론”. 『장로교회와 신학』 1 (2004): 167-90.
- 이신열. “이원론적 성령 사역?: 성령의 증거와 조명에 관한 칼빈의 견해를 중심으로”. 『조직신학연구』 (2008): 75-97.
- 정기철. “칼빈의 성경해석학에 대한 현대적인 의미 고찰”. 제19차 한국복음주의 조직신학회 발표논문 (2009년 11월): 1-15.
- 한성진. “칼빈의 기독교 강요와 주석과의 관계 연구: 어거스틴 사용을 매개로 하여”. 『칼빈과 성경』. 개혁주의 학술원 편. 부산: 고신대 출판부, 2008: 177-90.

Abstract

The Centrality of the Holy Spirit in a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Authority and Interpretation of Scripture in Calvin's Thought

Yoon, Hyung Chul

What is the relevance of Calvin to evangelical Christians, who try to chart the way beyond the postmodern epistemological crisis, for a full acknowledgement of Scripture's authority and accordingly a more faithful hermeneutical life? As an answer to that question, in this paper I look into Calvin's thoughts on the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the authority of Scripture and its interpretation, and particularly his insight of the pivotal role of the Holy Spirit.

For Calvin, Scripture is the book of covenant in the trinitarian economy of redemption, which can undo human being's epistemological impotency by the corruption of sin and bring the actual possibility of genuine knowledge of God.

Scripture is above all the Word of God. Scripture does not derive its divine authority from outside such as the church or the reason, but from itself, and thus 'self-authenticating'. In Calvin's thought, however, the self-authentication of Scripture is never isolated from the internal testimony of the Holy Spirit, who makes us believe the teachings of Scripture as the truth of God and leads us the trust and assurance of salvation.

According to Calvin, the authority and the content of Scripture are

so interrelated closely as to confirm its authority by its content illuminated by the Holy Spirit, who is the divine Author and the authentic Interpreter of Scripture.

The Reformation's hermeneutical principles of the self-interpretation and clarity of Scripture also remind us of Calvin's emphasis on the pivotal work of the Holy Spirit. The self-interpretation of Scripture is none other than the interpretation of the Holy Spirit, through whom God's self-accommodating Word can serve God's self-communication. Likewise, Scripture can be clear only due to the work of the Holy Spirit, who makes it possible for the faith community to hear the living Word of God in Scripture, in spite of its hermeneutical immaturity and vulnerability.

By all these, Calvin sought to rebuff and correct Roman Catholic position to domesticate and internalize the Holy Spirit within the formal institution of the church. Instead, Calvin insisted that the Holy Spirit wills to be conjoined with Scripture by an indissoluble bond, the external Word of God, and, by means of that Word, wills to make His presence and to work for the salvation of believers.

Key-Words: The book of covenant, Self-authenticating(αὐτόπιστος),
Testimony of the Holy Spirit, God's accommodating Word,
Self-interpretation of Scripture, Clarity of Scripture, Indissoluble
bond of Spirit and Word